‘난중일기’를 읽고

박지현

초등학교 시절, 해외근무를 하신 아버지를 따라 미국 워싱턴에서 3년을 살았는데 그때 워싱턴문인협회에서 주는 이순신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교포 한 분이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자 사재를 털어 매년 한

국학생들의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 당시
나는 아홉 살이었는데 '이순신 장군님께'
라는 짧은 편지글로 기대하지 않은 상
을 받아서 매우 기뻤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수상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난 이순신 장군을
떠올린다. 장군이 돌아가신지 몇 백 년
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렇듯 존경받고
추앙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임진년

(1592년) 부터 무술년 (1598년) 노량해
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7년 동안 직접 쓰신 일기체의
글이다. '구국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쓰신 일기라면 당연히 용감하고 당당하
고 영웅적인 내용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책을 읽으니 예상과는 달랐다.
간결한 문체에 가끔씩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아들의 죽음을 슬
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장군도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모든 걸 초월한 영웅이 아닌 한 인간의 솔직한 기록이란 점에서 난중일기는 더 울림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사년 5월21일, 원균이 거짓으로 공문을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대군이 동요하였다. 군중에서 이렇게 속이니 그 음흉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계사년 6월 7일, 아무개가 찾아와서 서울 소식을 자세히 전해 주었는데 그저 한스러웠다.”

“갑오년 6월 4일, 수군 여러 장수들은 서로 화목하지 못한 습관을 모두 고치도록 하라고 적힌 임금의 유지에 통탄함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원균이 술에 취해 망령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정유년 10월 14일, 면이 전사한 것을

알고 간담이 떨려 목놓아 통곡하였다.”

“정유년 11월23일, 아산 집에 편지를 쓰려니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거둘 수가 없었다.’

이렇듯 때론 마음 여리고 때론 남을 비난하는 인간 이순신을 우리 역사 최고의 영웅으로 만든 힘은 어디에 있을까? 역사와 민족,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아닐까 싶었다. 또한

매 순간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온 일상이 쌓여서 오늘날 널
리 추앙받는 맑고 고결한 일생을 이루
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왜란 당시 장군은 깊은 밤 잠 못
이룬 적이 많았는데, 그건 그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짊
어져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을 것이
다. 하지만 왜적에 의해 유린당하는 백
성과 국가를 구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내부의 수
많은 적들에 휩싸여 힘든 전쟁을 치러
내는 장군의 고독한 싸움은 너무 마음
아팠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명성을
시기하는 조정관료와 동료장수, 조선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왔으나 민폐와 굴
욕만 주고 오히려 적과 내통해서 자기
네 성과를 챙키는 명나라 군대……. 이
런 집단과 겨루는 게 적인 왜적과 싸
우는 것보다 훨씬 장군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웅에게 똑같은 대접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인터넷에 퍼지는 악성
댓글이 어쩌면 그런 징후가 아닐까?
전쟁은 그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고
의롭더라도, 목적과는 무관하게 의롭지
않고 비참한 것 같다. 전쟁이 나면 가
장 큰 고통을 받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게 일반 국민들이다. 적군에게
동원되어 방패막이로 희생되고, 강제 노

역에 동원되었다가 숨지고, 때론 적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아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최근엔 내전중인 시리아의 한
마을에서 자국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1300명 가량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많
은 아이들이 경련을 일으키며 호흡곤란
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전쟁이라는 미
친 상황에서는 수없이 일어난다. '난세

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하지
만 진정한 영웅은 전쟁이란 상황을 활
용하기 보다는 그걸 가슴아파하고 그걸
끝내려 노력하는 것 같다. 난중일기에
드러나는 이순신 장군의 고민과 번뇌를
보면서, 장군이 진정한 영웅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